**팀별 활동에 대한 후기 에세이**

**황윤서**

내가 에너지 전환 포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제주도의 해상풍력발전소가 전력과잉으로 자주 발전소의 가동을 멈춤으로써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온다는 기사를 접하고 난 후 왜 자꾸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려는 걸까 하는 의문이 생긴 것이었다. 그리고, 이면에는 탈원전이 우리의 세대에 꼭 필요한 일이지만 아직은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해, 원전을 반대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처음 소그룹으로 나뉘고, 각자 에너지 전환 포럼에 왜, 어떻게 지원했는지 사담을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다들 에너지 전환에 대해 환경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많았다. 기억나는 건 동물들을 사랑해서 그런 동물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려면 무조건 환경 보호를 해야 겠다! 하는 다짐으로 오신 분도 계셨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많은 공부를 하시는 비건이신 분도 계셨다.

나는 사실 나를 ‘환경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 ‘텀블러를 챙겨야지.’ 생각은 하지만 항상 나올 때는 까맣게 잊어버리고는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에 담긴 내가 좋아하는 녹차 프라푸치노를 마시면 세상 행복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배달음식도 많이 먹어서 항상 먹고 나면 ‘아 다음에는 시키지 말아야지’하면서도 다음에 또 시키게 되는 모순적인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내가 소그룹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난 사실 정보를 얻으려 왔지만 여기는 정말 환경을 사랑하고 진지하게 고민한 사람들만 모일 수 있는 곳인가 하는 자책감도 빠졌다. 어느새 내가 말할 차례가 왔고 나는 솔직하게 원자력과 전기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는 것과, 난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세상을 원한다고 말했다. 환경 운동가들 중 원전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니까 환경을 공부한 사람들 앞에서 말했을 때 나를 무식하다고 생각할까봐 겁도 났지만 다들 나와 비슷한 의견이었고, 원자력을 전공하는 나와 같이 원전에 대한 방대한 지식도 갖추어져 있었다. 나는 갑자기 내가 말한 후 다른 분들께서 자신들의 의견을 하나씩 던질 때 나는 내 스스로가 부끄러워졌다. 나도 내 방식대로, 원전의 안전성만 보장된다면, 많은 양의 에너지를 낼 수 있다고, 어쩌면 환경을 보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부인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내 길만 생각했지, 남의 길은 잘 보지 않았던 것 같아서 내가 너무 편협한 사고를 했던 게 아닐까 고민했다.

지금은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의 출력제한 관련 제도나 거기서 오는 손해에 대한 보상 방안을 고민 중이다. 내가 알고 싶었던 부분을 우리 팀원들과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가며 내 스스로 찾아 나간다는 것이 설렌다. 어색함을 풀 아이스 브레이킹이었지만, 나에게는 그 이상의 선물을 주었던 것 같다.